



조주완 LG전자 CEO  
“질서·규칙없는 경쟁이  
표준 될 것”

06



Economy

코스피	2484.43 (+27.62)	코스닥	697.57 (+3.10)
금리 (미국 3년)	2.536 (-0.085)	환율 (원-달러)	1437.30 (-1.60) (18일)



닛산 최고경영자 우치다 마코토(왼쪽)와 혼다 사장 미베 토시히로가 지난 3월 15일 도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中 BYD 세계 질주에 日 혼다-닛산 뭉친다

## 자동차 시장 지각변동

日 혼다·닛산, 경영 통합 협의  
전기차 경쟁력 확보 생존 전략  
800만대 판매 '공룡' 탄생 전망  
현대차·기아 '글로벌 3위' 위협

세계 자동차 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전동화 시대를 맞아 중국 완성차 업체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2, 3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합병에 나선 것. 이 두 기업이 합병을 완료할 경우 현대차·기아를 위협하는 자동차그룹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된다.

18일 자동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이 경영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주사를 설립해 양사가 그 산하에서 각 브랜드를 독립 운영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비슷한 운영방식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스텔란티스는 2021년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계 자동차 제조사 그룹이 합병하며 설립됐다.

혼다와 닛산은 곧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분과 기타 세부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닛산이 지분 24%를 보유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자동차까지 향후 지주사 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의 통합이 완료되면 연간 판매 대수는 800만대를 넘어서는 '공룡'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3위를 기록한 현대차·기아(730만대)의 판매량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혼다와 닛산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각각 398만대,

337만대였다. 미쓰비시는 78만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업계는 토요타자동차그룹과 혼다·닛산·미쓰비시 동맹의 양대 진영으로 재편된다. 이들은 전기차 부품 공동화, 주요 부품 공동 개발, 소프트웨어 공동 설계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합병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기술을 선도하는 테슬라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는 지난 3분기(7~9월) 113만대 판매하며 미국의 대표 완성차 제조 업체 중 하나인 포드(109만대)를 제치고 전세계 판매량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혼다는 91만대 판매하며 9위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협업에 나서고 있다.

최근 현대차(세계 3위)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세계 5위)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협업을 통해 향후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및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양사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는 승용·상용 차량, 내연 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이다. 또 양사는 배터리 원자재, 철강 및 기타 소재의 통합 소싱 방안을 검토한다. (6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9조 규모 7개 프로젝트 내년 착공 적극 지원”

##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국가비상사태 돌파구는 기업투자”

정부가 내년 중 지방 교통시설 확충 등의 프로젝트에 포함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비상사태 속에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



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 안건이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준공 절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또 경남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지정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강원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탄핵정국 관련기사 2·3·4면>

# 정용진, 트럼프 장남과 회동... 올해만 네번째

(신세계그룹 회장)

美 마러라고 리조트 1박2일간 방문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조우 가능성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같은 개신교 신자로 종교적으로도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만남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도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어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조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19일 마러라고에서 거액의 입장료를 낸 기부자들과 함께 하는 만찬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 행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후원 조직인 ‘마가(MAGA)’가 주최한다.

만일,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게 된다면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기업인으로서 첫 만남이 된다.

한편,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 가능성도 언급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머스크 역시 현재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재선 기자 wotjs4187@

#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등 7개 단지 조경대상 수상

## metro 아파트조경대상 휴앤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8일 서울 종로구 ‘르 큐제’에서 ‘2024 metro 아파트조경대상 휴앤휴(休&休) 시상식’을 가졌다.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입주아파트 단지(‘아파트의 미학’)에 소개된 27곳의 아파트 가운데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해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안상철 조경기술사 ‘아텍’ 대표, 이정희 메트로신문 상무이사 등 심사위원들이 지난 달 27일 종합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조경혁신대상은 ‘복수원 자이렉스비아(GS건설)’가 차지했다. 이어 ▲커뮤니티대상 ‘제일풍경채움정(제일건



18일 서울 종로구 르큐제에서 열린 ‘메트로 조경대상 휴앤휴’ 시상식 수상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장규(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윤준호 SK에코플랜트 프로, 백현철 제일건설 매니저, 강형문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고문(전 한국금융연수원장), 윤휘종 메트로신문 편집국장, 양문석 GS건설 홍보팀장, 김종원 대우건설 부장, 여천환 DL이앤씨 홍보팀장, 류탁수 쌍용건설 홍보팀장, 조동현 포스코이앤씨 과장. /손진영 기자 son@

설) ▲테마조경대상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DL이앤씨)’ ▲스마트환경대상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대우건설)’ ▲미래가치대상 ‘쌍용더플래티넘

장향(쌍용건설) ▲친환경단지대상 ‘더샵둔촌포레(포스코이앤씨)’ ▲브랜드 혁신대상 ‘SK뷰하익(SK에코플랜트)’ 등이 각각 선정됐다. /전지원 기자 jiw13@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덕수 “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따라 이뤄질 것” /사진 뉴시스  
▲현재 “윤 탄핵심판 서류 송달 안돼... 대통령 경호처 수취 거부”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논란... 현재 ‘9인 체제’ 변수되나  
▲이주호 “계엄, 분명히 동의 안 해... 국무회의 연락 못 받았다”



▲권성동 “한 권한대행, 국회 증감법 등 위헌적 법률 거부권 행사해야” /사진 뉴시스  
▲이준석 “한동훈, 다음 대선 나오지 않는 게 좋다... 실적 없어”